



"가을에 친아비 제사도 못 지냈는데 봄에 의붓아비 제사 지낼까"

뜻: 형편이 넉넉할 때 가장 중요한 일도 못 했는데, 상황이 어려울 때 덜 중요한 일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형편 · 우선순위 · 능력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가	을	에	↘	친	아	비	↘	제	사	도
못	↘	지	냈	는	데	↘	봄	에		
의	붓	아	비	↘	제	사	↘	지	낼	까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가	을	에	↘	친	아	비	↘	제	사	도
못	↘	지	냈	는	데	↘	봄	에		
의	붓	아	비	↘	제	사	↘	지	낼	까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↘				↘			
	↘					↘				
			↘			↘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ㄱㅇㅇ] [*ㅇㅂ] [ㅈㅈㅈ] [ㅁ] [ㅈㅈㅈ] [ㅂㅇ] [ㅇㅂㅇㅂ] [ㅈㅈ] [ㅈㅈㅈ]

웹에서 보기

